【 2 】양주시 도시기반시설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제출연월일 : 2005. 3. 10
발 의 자 : 이종호 의원 외 2인

□ 제안이유

우리 시에 추진 중인 각종 도시기반시설사업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시에 미치지 못해 시민들의 국가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편이 증가됨은 물론, 우리 시의 각종 개발계획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 및 경기도에 촉구 건의안을 통보하여 도시기반시설사업의 조기 완공을 이루고자 함.

□ 주요골자

1. 경원선 전철 복선화 공사의 조기 준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촉구
2.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조기 완공과 부분 준공된 구간의 조기개통 촉구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기완공과 부분 준공 구간의 조기개통 촉구
4. 국지도 39호선의 우선순위 앞당기고 건설시기 조정 요구
5. 국지도 56선 확포장사업의 계획된 시기 내 준공 촉구
6.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조속한 계획수립과 투자순위 선순위 조정 촉구
7. 우리 시 지역 내 도로의 확포장을 통해 군부대전용 차선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촉구

붙 임 : 양주시 도시기반시설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 1부

양주시 도시기반시설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양 주 시 의 회

양주시 도시기반시설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우리 양주시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중첩된 규제법규로 인해 개발의 제한을 받아 왔고

국가 및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투자사업의 순위도 후순위로 밀리는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여 다른 수도권 인접 지역에 비해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도로교통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대적인 낙후지역이었으나,

최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정부의 수도권 인구의 분산 정책으로 지역내 신도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북부의 신흥도시이자,
다가올 통일시대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이 될 무한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양주시 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사업이나 도로교통망 구축사업 계획에 맞춰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에는 인구 36만명의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를 지나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및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수차례 연기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맞춰 추진되어 온 덕정동 주공단지나 삼숭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준공 되었지만
입주민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도로교통망이나 도시기반시설로 생활의 불편을 겪으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또한, 옥정 신도시를 비롯한 광석, 고읍, 마전·남방 광역도시계획 등 300여만평의 택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2008년 이후부터 입주계획을 하고 있으나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사업의 준공이 계속 지연될 때에는 입주율의 저조로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며

지금까지 각종 개발 규제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추진 중인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 등은 물론이며
계획된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등의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조속히 시공 및 준공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부대 주둔지역의 주민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군사전용차선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 전철망 구축으로 도심권 인구분산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의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경원선전철복선화 공사는

당초 95년도에 시작하여 200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준공시기가 2004년 12월말로 1차 연기되었고
다시 2006년 12월말로 2차 연기되었으며

이 마저도 사업비 미확보로 기간 내 준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바,
이의 조기 준공을 위해 특단의 대책 수립과
덕정역사 주변 도시지역이 토공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이 단절되어 양분현상등 기형적인 도시가 우려되는 바
사업비와 공사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계획에 따라 토공에서 교량형 구조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의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공정율이 47%에 불과해 당초 준공계획시기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시기에 맞춰 건설된 동두천 송내지구, 양주 덕정주공단지, 삼숭동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증가로
기존의 국도는 도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항상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우회도로의 조기 완공과 부분 준공된 구간의 조기개통을 촉구합니다.

셋째, 사패산 터널공사의 중단으로 인해 준공시기가 당초 2006년에서 2008년으로 2년이나 지연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기 완공과 부분준공 구간의 조기 개통으로 수도권 광역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국지도 39호선은 서울 서부지역(구파발, 불광동)에서 양주를 경유하여 동두천과 연천까지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도로 설치 시 건설 중인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송추IC까지 10분 이내 거리이나 현재는 1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지도 39호선을 부득이 이용하여야 하나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실정으로 진행 중인 공사일정(2003-2008년)이 순탄치 못하여 아직도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보면 본 도로를 이용하여 기존인구 및 광석택지 개발지구 지정과 국제자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이들 유입인구의 입주년도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시기에 맞추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선순위를 앞당기고 건설시기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다섯째, 양주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국지도 56호선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의 해소와 도로의 선형개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지도 56호선 확·포장사업은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현재 용지 보상단계에 있어 이들 사업의 준공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바,

관계기관에서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반드시 계획된 시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 - 연천간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투자순위가 후순위로 책정되고 건설예정시기가 불투명하여짐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고속도로 신설로 수도권 진입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기대하며 한껏 희망에 차 있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낙심이 커져가고 있으니

관계기관의 조속한 계획수립과 투자순위의 선순위 조정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우리시는 지난 50여년동안 25사단을 비롯한 5개 사단급 부대와 2개의 기갑여단 및 여러 탄약고 기지 등의 주둔지이며
각종 군사작전훈련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지역개발의 규제를 받아왔고 사유 재산권행사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군부대작전 훈련 때마다 기동하는 육중한 군장비로 지역내 도로 파손이 잦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도로복구비용도 우리시 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양주시 지역주민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만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 모두의 군대입니다.
하지만 군부대에 의한 피해는 군부대 주둔지역 주민의 몫으로 남고

다른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의 혜택으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무작정 군부대를 작전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군부대 주둔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불식시키면서도 군사 작전 및 훈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내의 기존 도로폭을 확장하여 군전용차선을 확보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이 통행도로로 활용하는 혜택을 누리고 군사작전 및 훈련시에는 군전용차선을 군부대가 통제하여 사용한다면
민간인 차량으로 인한 도로체증으로 발생하는 작전 및 훈련 장애나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같은 주민안전사고가 없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군부대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우리시 지역내 도로의 폭을 조속히 확장하여 군부대전용 차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에서 촉구한 사업들의 조기 완공은 물론,
신도시 개발 계획에 맞추어 각종 도로망과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판교 신도시에 필적할 수 있는 쾌적한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대책안을 서둘러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5. 3.

양 주 시 의 회